

기생의 은유화 방식을 통해 본 기생의 현실과 그들의 욕망*

강소영**

— <차 례> —

1. 서론
2. 인지언어학에서 살펴본 은유
3. 은유를 통해 본 1920년대 기생의 욕망
 - 3.1. 장한이 발간되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
 - 3.2. 기생을 대상으로 한 은유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장한』을 대상으로 기생과 관련한 은유적 표현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시기의 기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0세기 초 기생은 기생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그 이전 기생들과 다른 모습이었다. 자본주의의 물질적 소유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생들은 유흥집대 자체를 직업으로 여기기 시작하였고, 그녀들의 노동행위를 일반인들이 천시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한다. 이는 그동안 개인 문집이나 문학작품과 같이 다른 이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된 기생의 이미지가 아니라 『장한』이라는 잡지에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재현한 기생들의 글 속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본고는 『장한』속에 드러난 기생의 은유적 표현들을 찾아 분류하고 당시 잡지와 신문에서 기생을 형상화한 은유적 표현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이에 따르면 둘 모두 꽃, 장난감, 천인, 짐승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사대부의 완롱물이었으며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기생들의 역사를 고려하면 당연한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AL0015)

** 이화인문과학원 HK 연구교수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기생의 목소리에는 자신들을 악마라 칭하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악마임을 역설하거나, 독충이라 비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에게 끌려 다니는 가축의 신세였음을 하소연하여 그녀들만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결국엔 [기생은 불구자이다] 은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생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동일한 인간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기생의 삶은 전쟁이다] 은유를 통해 선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언어 속에 관습적 은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관습적 은유, 특히 서술어를 중심으로 기생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면, 언표적 의미 아래에 숨겨진 그녀들의 목소리가 행간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새어나온다. 이것이 『장한』을 통해 기생들이 일반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인지언어학적 은유 개념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이기도 하다.

주제어 기생, 인지언어학, 은유, 기생은 불구자, 기생의 삶은 전쟁

1. 서론

해어화, 말을 알아듣는 꽃, 기생을 지칭하는 오래된 은유인 이 단어에는 기생의 존재이유가 담겨있다. 사대부의 ‘말’은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기예만이 아니라 그들의 성적 욕망에 화답하는 육체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기생은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공급하는 자원이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관기가 해체되자 예(藝)를 선보이던 것을 업으로 삼았던 기생과 매음을 업으로 삼았던 창기가 뒤섞여 ‘기생’이란 명칭에 들어가게 되었다. 소리기생, 화초기생, 모던기생, 댄스기생 등을 모두 ‘기생’이라 칭하였던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궁중 공식 의례나 연회에 참석한 전문 예인의 자격에서 출발

한 기생의 연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일반인의 시선이 기생들에게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장한』역시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인식하고 기생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고 싶은 열망을 담은 결과, 세상에 출간된 책이다. 『장한』은 손님의 입장에서 기생에게 바라는 점을 기술하거나 소설(홍부전, 당황제와 양귀비, 세계 명작), 유머집, 건강 상식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싣고 있으나, 대부분은 기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들의 현실을 써내려가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전까지 기녀가 남긴 시를 보긴 했었지만, 이는 사대부의 언어를 통해 자기를 드러낸 것이었기에 그 안에 재현되는 기생의 이미지는 기생을 향유한 사대부 남성들의 시선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스로 서사의 주체가 되어 그들의 목소리를 토로한 자료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고는 『장한』을 통해 표출된 기생의 은유적 표현과 신문, 잡지를 통해 표출된 기생의 은유적 표현들을 비교하여, 기생이 무엇을 말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의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지언어학에서 살펴본 ‘은유’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은 인간 마음의 본질,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며 ‘언어, 몸과 마음, 문화’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언어이론이다. 이는 그동안의 언어에 대한 추상적, 형식적 정의나 기술이 언어표현의 개념이나 관계 혹은 구조를 밝히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인지언어학 이전의 언어의 의미는 주로 어휘 수준에서 연구되었으며, 한 단어의 의미는 다른 단어와의 체계적 관계에 의해 그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Lyons, 1977:202)하였다. 즉 ‘사람’관련 어휘들은 아래와 같이 의미자질이 분석된다.

| | |
|-------|-------------------------|
| man | [+human][+male][+adult] |
| woman | [+human][-male][+adult] |
| boy | [+human][+male][-adult] |
| girl | [+human][-male][-adult] |

이들은 모두 [+human]을 공통자질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기 성(性)과 성숙(成熟)의 여부에 따라 대립되는 위치가 설정된다. 그것이 곧 그 단어의 의미이다. 그러나 모든 단어가 이처럼 의미자질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머그컵, 유리컵, 종이컵 등 크기(대형, 중형, 소형)와 모양(손잡이의 유무)이 다른 컵들을 동일하게 컵이라 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컵’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의미범주는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선이 연결된 산처럼 의미가장자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뜻한다.

그러나 사물들의 경계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나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범주화한다. 예를 들면 산, 길모퉁이, 울타리 등의 어휘는 우리가 가진 특정한 목적-산들의 위치 결정, 길모퉁이에 서의 만남, 울타리 치기-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다. 물리적 현상을 마치 우리 자신처럼 분리된 것, 우리의 경험 속에서 물건이나 물질처럼 식별 가능한 것으로 인위적인 경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이며 추상적인 세계를 물건이나 물질처럼 구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은 어떤 사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은유적이다.¹⁾

이때의 은유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적 수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사물에 대해 사고하고 개념화하는 ‘개념으로서의 은유’를 지칭한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인간의 사고 과정의 대부분이 은유적이다. 아래 예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1) 가. 머리가 녹슬었나 봐

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별 수 없지, 뭐

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

라. 그녀가 요즘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정도로 나약해서 걱정
이야

(1-가,나)는 인간의 정신을 녹슬고, 돌아가며, 움직이는 기계로 표현하는 데 비해 (1-다,라)는 무척 약해서 산산조각 나거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신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기계나 유리와 같은 물건과 동일시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이지만 화자가 경험한 양상의 차이가 표현에 드러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비교되고 동일시되는 두 개체 사이의 객관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판단하던 은유의 개념이 아니다. (1)의 예시처

1) 이는 Lakoff&Johnson의 『삶으로서의 은유』(노양진, 나익주 역, 1995:49-50)를 옮긴 것이다. 은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1980년 레이코프 (Lakoff)&존슨 (Johnson)의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s We Live By)에 의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깁스 (Gibbs 1994) 커베체쉬 (Kovecses 1990, 1995, 2002) 등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 인지언어학의 핵심적인 이론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은유에 대한 이 새로운 견해를 인지언어학적 은유 혹은 개념적 은유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깁스의 이론은 나익주가 번역한 『마음의 시학』을, 케베체쉬의 이론은 이정화 외 『은유』를 참고하기 바람.

럼 어떤 이는 기계로, 어떤 이는 유리처럼 느낄 수 있었던 그들의 체험이 관여하며, 이는 ‘기계:정신 유리:정신’, 두 개념이 갖는 생물학적, 문화적 뿌리 등 인간의 다양한 체험에 근거하여 비교대상의 유사성이 결정되는 은유이다. 따라서 인지언어학적 은유관은 은유의 기능이 수사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각하는 것,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실재(realities)를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주장한다.²⁾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개념적 은유는 그것이 수행하는 인지적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로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논쟁은 전쟁]과 같은 은유를 들 수 있는데,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전쟁의 승부와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가. 어렵게 그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었다.

나. 나는 그와의 논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다. 말이 막힐 때마다 그 사람이 나서서 방어해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 상대의 날카로운 질문에 내 문제점이 한 방에 꿰뚫렸다

2) 이러한 언어관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은유란 단지 언어의 문제일 뿐이어서 은유적 개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라본 이전의 언어전통을 깬 것이다. 즉 “나는 이 사실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에서의 ‘소화하다’는 이전의 언어학자들에게 살아있는 은유의 실례가 아니다. 그들에게 ‘소화하다’는 두 개의 상이하게 보이는 문자적 의미-음식과 관념-을 갖는다.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는 ‘소화하다’는 동음이의어이다. 즉, 그들에게는 이들은 죽은 은유 즉 이제는 관습화되어 그 자체로서 문자적 의미를 가진 말하기에 두 개의 동음이의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현재의 다의어(多義語) ‘소화하다’의 사전처리방식과도 맞지 않다.

우리가 논쟁 상대자를 적수로 보고, 그를 공격하고 우리 자신을 방어하며 실탄을 장전하여 상대방의 문제점을 꿰뚫기도 한다. 우리가 논쟁할 때 수행하는 많은 행동은 부분적으로 전쟁이라는 개념에 의해 구조화된다. 논쟁과 전쟁은 담화와 칼, 무기로 수행되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행위들도 다른 종류의 행위들이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은유적인 언어표현들이 개념적 은유 [논쟁은 전쟁]에 의해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된다. 근원영역인 [전쟁]의 구성요소들(장수, 사병, 무기, 전략, 함정, 진지 등)과 목표영역인 [논쟁]의 구성요소들(대화 참여자들, 언어, 담화배열순서, 모순, 입장) 사이에 일련의 사상관계가 형성되어 (2)와 같은 은유적인 언어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감정, 경험, 사건 등에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는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이다. 앞의 예시 (1)처럼 추상적인 정신(mental)을 기계나 유리와 같은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지향적 은유로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쉽게 공간 지향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위-아래, 안-밖, 중심-주변 등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을 맺고 있어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처럼 어떤 개념에 공간적 지향성을 준다. 행복이 위이고 슬픔은 아래 방향이라는 사실은 '고결하다, 윤락녀, 타락'과 같은 표현을 생성한다. 기준의 양쪽 끝인 위, 아래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월함은 더 높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으며 브라만이라는 산스크리어 역시 높이를 의미하는 용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³⁾ 우리말 역시 '높다:낮다, 크다:작다, 넓다:좁다, 얇다:두껍다'의 대조항에서 척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높다->)높이, (크다

3) 구동희, 심승희가 번역하여 2005년에 출간한 이푸-투안의 『공간과 장소』를 참조하면 문화별로 다양한 지향적 은유를 발견할 수 있다.

->)크기, (넓다->)넓이, (두껍다->)두께가 선택되어 [좋은은 위]라는 지향적 은유가 범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개념적 은유는 한 영역의 경험을 다른 영역의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나간 시간을 재구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집들은 이를 편찬한 '나'의 목소리를 은연중에 품게 된다. 따라서 명시적인 언어표현을 통해 과거를, 과거의 어느 한 인물을 조망하는 것과 함께 은밀하게 감추어진 언어표현을 들추어내어 그들의 숨겨진 내면을 함께 조망해야 그들의 실재(what is real)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일상적 언어에 반영되어 있는 은유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은유의 개념을 넓게 확대하여 수사적 은유만이 아니라 일상적 언어에 반영된 개념적 은유까지 분석하여 문장을 발화하는 심리화자의 의도를 재구해 보려고 한다. 그들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3. 은유를 통해 본 1920년대 기생의 욕망

3.1. 장한이 발간되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

일반적으로 기생은 조선시대의 관기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조선 시대의 기생은 1908년 9월 장악원에서 관리하던 기생들을 경시청에서 관리하고 기생들에게 자유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끝이 났으며 이후 기생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통감부에 의해 주도된 공창화 정책에는 예능인인 기생과 매음녀인 창기를 동일시하여 함께 통제하려는 의

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점차 기생과 창기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따라서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번박하게 기생이라 칭하기에 이르렀다.⁴⁾

그러나 『장한』이 발간되던 1927년 당시 신문자료를 검토하면 아직까지 기생을 창기와 구별하여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1) 길전마사는 예, 창기 소개업이라는 듣기에도 별로 향기롭지 못한 영업의 간판을 붙여 놓고(중외일보 1926.11.30)

(2) 기생권번이나 학교에서 보통교육과 가무를 잘 배워 가지고 나온 기생도 있고, 또는 당장의 생활 곤란을 면치 못하여 가무를 배우지 못하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또 나이 23-4세나 되었으되 영업장을 내어 가지고 다니며 소위 기생행세를 하고 있으므로(매일신보 1927.11.15)

(3) 지난 3월 중에 경남 김천에 창기를 사러 갔다가 마침 경남 함양군 함남면 상동 이월차와 정순녀 2명이 무단출가하여 있는 것을 알고 그곳 정문상이란 자와 결탁하여 가지고(중외일보 1927.7.20)

(4) 금년 25일부터 내지 북강시에서 열리는 동아권업박람회 조선관 협찬회에서는 조선의 유명한 어여쁜 기생들의 가무를 널리 관람하게 하여 박람회의 이채를 드러나게 할 목적으로 한성권번 기생 10명을 데려가기로 하였다는데(매일신보 1927.3.21)

(1)은 직업소개업자가 기생을 ‘예기/창기’로 구별하여 간판에 표기하였음을 보고한 기사인데, 당시 사회에서 아직까지 ‘예기’로 대표되는 기생과 매음을 하던 ‘창기’를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일하게 기생이라 칭하고는 있으나 가무를 주특기로 내세우는 이들은 ‘기생’으로, 예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웃음을 팔러 나온 이들은 ‘기생행세

4) 이는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의 주변자료를 토대로 밝혀진 것으로, 장유정(2004: 104), 서지영(2005:274-275)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를 하는 이'라 엄격하게 구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보인다. 이는 매
음을 하는 창기의 경우에는 '여성'이기만 하면 가능하지만(3), 기생은 박
람회에 나가서 조선의 전통예술을 선보일 문화사절단으로의 역할(4)까지
수행해야 하기에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시각이었음이 아래의 글에서 드러나는데, 『장한』
을 통해 기생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창기와 동일하게 대하고 있음을 지
적한다.

(5) 저의들이 불행히 돈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안이치 못할 처지를 당하여
남의 노리개 노릇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왕왕히 생각을 들 하시는 옛던
손님은 기생과 창기를 혼동해 보시는 폐단이 만습니다.(보통인간으로 대하
야 주었스면, 一妓生)

(6) 예기란 무엇인가 연석에 초래하여 음악과 가무를 연주하여 연속에 흥
을 일층 노피게 일단의 풍류를 가미함에 종사하는 녀성이다.(예기의 립장과
지각, 윤옥향)

본인들을 창기와는 구분시켜 봐달라는 기생의 목소리가 담긴 예문이나
자신들을 '예기'라고 구별하여 부르는 기생의 목소리에는 자신들은 재주
와 기예를 팔아 돈을 번다는 자존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신분제가 없어졌어도 관기에서 시작된 기생의 천함마저 사람들
의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아 귀(貴)한 부인과의 차별의 벽은 여전하며, 이
들은 사회에서 배척받았다.

(7) 귀부인과 기생의 식별은 연구할 할 문제 (매일신보 1919. 12. 9)

근래에 와서 어떤 건방진 기생은 길에 나서면 기생이라는 태도를 없애고
좀 높이 보여 대우를 받을 작정으로 그 언어, 동작이든지 그 복색을 아무쪼

록 같이 하고자 하여 도저히 그 행색을 구별하여 볼 수가 없는 터이라, 이것이 지금에 시급히 개량할 요점이라 하겠다.

(8) 기생과 첩은 입학 불허(시대일보 1924, 4, 10)

시내 인사동에 있는 태화여자관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물론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여자에게는 입학을 허락하여 왔으나 기생과 첩 같은 사람은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장래의 희망이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기생이나 첩 같은 사람은 절대로 입학을 허락지 않길 하였다.

(7)은 기생의 폐습을 고치기 위하여 약정서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한 가지 더 필요한 일이라 기술한 글로 서양 중국의 화류계 여자들이 입는 옷의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생 역시 구별할 표식을 하라는 내용이다. 일반 여성과 같이 섞여 있는 것조차 볼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생은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교육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학교장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은 공적인 장면에서도 수렴되어 기생의 일생을 극화한 무대에서도 읽힌다. 기생 중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여성들의 일생을 통해 순탄치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9) 가끔가끔 심심하면 이야깃거리를 장만해 주던 강석자(姜錫子, 18)=옛날 기명으로 강향란=는 영화 여배우로 지금 촬영 중에 있는 정기탁 공(共)이경손 감독 신영화 <봉황의 면류관>에 박래품 아주머니 역을 맡아서 출연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이때까지 세상에 이야깃거리를 장만해 놓은 <프로그램> 중 중요한 것만을 추려 요점만 따 놓으면 이러하다고 한다.

- 당대 유수한 기생으로 모 청년의 도움을 받아 기안을 던지고 배화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던 <공부막>
- 공부하던 중 일 년이 다 못되어 실연 소동을 일으켜 한강에 투신 소동을

하였던 <실연막>

- 여자로 굵게 살자면 남자만 못하지 않다고 사회주의에 감염되어 머리 깎고 남북 하고 남학교에 출석하던 <단발미인막>
- 지금의 조선 여자란 꼭 3가지 길이 있다고 하며 한 길은 민족을 위하여 □□운동에 헌신할 길, 한 길은 기껏 춤추고 노래하며 질탕하게 놀이볼 길, 또 한 길은 자살할 길 세 길밖에 없는데 첫 길은 몸이 약하여 못 가겠고 둘째 길은 이미 많이 가본 길이라 다시 갈 수 없고 나머지 셋째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음독하고 자살하려다 못 죽고 살아난 <자살막>
- 상해, 일본 등지로 무턱대고 돌아다니던 <방랑막>
- 맨 끝으로 지금의 영화계로 나선 <배우막>(동아일보 1926.10.8)

이에 비추이면 기생들 중에는 화류계를 벗어나 여학생이 되기도 하였으며 여성의 인권을 위해 사회운동에 나선 사람도 있었지만 이쉽게도 자살로써 생을 마감한 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생의 굴곡진 인생의 여러 면을 본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그들의 가슴에 쌓인 한을 풀며 현재와는 다른 삶을 꿈꾸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을 것인데,⁵⁾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장한』은 이러한 목적에서 나온 기생이 만든 최초의 잡지이다.

(10) 웃고 살아도 부족이 만흔 세상을 엇지하여 한탄으로 살가보냐. 그러나 우리의 이 「장한」은 압호로는 장한이 업게 하자는 장한이다.

처지가 갖고 사정이 가튼 만흔 동무들아. 힘껏 서로 도움자 영원히 눈물과

5) -투강자살하려던 박명소녀 김금순(매일신보, 1925, 11. 18)

-강명화의 자살(동아일보, 1923, 6. 15)

- 정신적으로 각성하는 기생 사회의 신경향 (매일신보, 1920, 4. 6)

이런 제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하거나 정사로 세상을 마감하는 기생들이 많았지만 새롭게 계몽의 눈을 뜬 기생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숨만 벳을 삼을 것이냐! 그것을 원치 안커든 마음과 힘을 합하자, (장한 창간호 권두언)

(11) 우리를 세상에 알닐만한 학식이 업다. 우리 속을 그대로 그려낼만한 말을 모른다. 다만 약한 손에 서투른 붓대를 잡고 그네에 끼쳐주신 눈물! 방울방울 썩러지는 그대로 한 획 두 획 그을 뿐이로다. 아모리 우리의 세상이 아닌 남의 세상이기로 설움 잇는 자의 눈물조차야 못 흘릴게 무엇이랴?

울어보자! 눈물이 마르기까지, 장한에 예루다리 하여가며 불상한 우리 동물들아! 다갓치 마음껏 울어보자!(우름이라두 맘껏 울어보자 매현)

기생들의 평소의 한을 없애기 위해 『장한』이라는 잡지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편집자의 목소리에서처럼 당시 기생들은 눈물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가슴의 한(恨), 설움을 씻어내기 위하여 『장한』을 발간하게 되었음(11)을 알 수 있다. 특히 (11)의 ‘남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던 기생은 당시 다른이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생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과 달리 기생들은 자신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하찮은 사람이라는 시각을 부정하기도 한다.

(12) 이: 아- 자네 큰일날 말 하지 말게. 기생으로 ×학×비교 도로혀 아담하단말. 하하-교육의 풍조가 달나서 고전적 격식에는 소홀하고 낭만적 자유쾌활을 숭상하는 이제이닛가 (중략)기름도 분도 바르지 안이한 자연의 미태는 머리털 낫낫치 바람을 짜라 심사하며 추포와 본복의 의복에 구두 발길은 수혜를 대신하여 쾌활한 행보는 얼마나 사업상 조취할만한 기상이 보이던가.

김: 근래 하계에서 외국에 가 공부나 하고 와서 사회출신의 무슨 봉급이나 붓치이면 여득룡문으로 세상을 무시할뿐외라, 자기 친부모까지라도 후류이나 완고이니 배척박대하야 천륜에 행치 못할 늙은 부모로 원한이 구천

에 사모치게 하는 자가 종종하니 이런 자에 대하여는 예기의 행동이 오히려
얼마나 신성하든가(萬紫千紅 기생도 사람다운 생활, 김계현, 장한1년2호)

기생과 여학생을 놓고 비교한 글로, 한 사람은 여학생이 기생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기생이 형제
와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임을 높이 사야한다고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이들이 기생과 여학생은 서로 급이 다른 인간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지만, 기생들만의 잡지에서는 여학생보다 더 우위에 놓을 수
도 있음을 보이는 예로, 『장한』 속에서 기생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
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
다. 따라서 본고는 이처럼 사회의 모든 이들과 달리 기생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
가길 원하는지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은유적인 언어표현들을 통해 살
펴보려고 한다.

3.2. 기생을 대상으로 한 은유 분석

1) 기생은 불구자다

조선시대 기녀 집단은 궁중 연회에서 가무를 담당한 여악에서부터 지
방 관아의 잡일, 관리의 수청 등 다양한 층위의 노동을 요구받았던 천민
여성이었다. 따라서 연회의 흥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아름다운 미색을 뽑
내야 했으며, 가무를 겸비하여 사대부의 풍류를 진작시키기 위한 갖가지
유희적 욕구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여인의 전형적
인 비유법인 ‘꽃’과 사대부의 노리개 즉 ‘장난감’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남자들에게 웃음과 노래를 팔고 있어 다른 이

들에게 ‘악마’ ‘독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먼저 신문이나 잡지에 비친 기생의 모습부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가. 애처로운 한 송이의 꽃봉오리는 깊은 산속에서 향기를 토하지 못하고 마침내 길가에 피어서 무참하게도 모든 행객에게 함부로 꺾이움을 당하게 되었었다.(매일신보 1924.2.3)
- 나. 퇴폐한 소 부르조아의 향락적 내지 수욕적 완구로써 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금일의 기생의 존재는(직업순례 기생. 신민 제30호, 1927.10)
- 다. 주석에 당하여 기생이라는 물건을 알선할 기생감이 있나?(매일신보, 1919. 11.15)
- 라. 다수한 기생들을 볼 때에는 누구든지 저런 마귀들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나겠지마는(매일신보 1924.2.2)
- 마. 기생은 사나이의들의 등골을 빼는 독충이라고 저주하던 사회에서 다소의 동정을 보내게 되매(중앙 3권2호, 1936.12)

따라서 기생 스스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역시 ‘꽃’과 ‘장난감’ ‘(사고파는)물건’ ‘짐승’으로 표현한다.

- (14) 가. 아-모진 비 쏘지 마라! 피라든 花 썩러지려 하노나!(인의 일생은 고통의 역사, 고죽)
- 나. 우리의 이러케 하는 소이는 오직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조하여서 그 엇더한 최리의 목적을 달케 하고저 함이오, 그들의 작난감을 짓고저 하는 비는 아니다.(화류계에 다니는 모든 남성들에게 원함. 매화월)
- 다. 작난감 인형과 갓치 동물원의 원숭이나 앵무새갓치 미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싸닭에(기생생활의 이면, 김란강)

라. 기생이라면 이 세상 사람은 입은 실죽어리고 손을 내저으면서 상관 못 할 악마라고 한다.(사랑하는 동무여, 김녹주)

(14)에서 기생은 떨어지는 ‘꽃’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가) 장난감이나 물건으로 취급당하는 자신(나,다)을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구경거리로 내놓은 동물들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는데(다), 기생은 스스로를 ‘악마’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14-라)처럼 악마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짓는 것에 강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 스스로를 악마라고 바라보진 않는다.

이러한 미묘한 시선의 차이는 기생이 머무르는 곳을 묘사하는 데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15) 가. 식물원에 온갖 꽃이 어우러져 피어있되 어느 것이나 다 풍정이 있는 모양으로 아기자기한 인생의 꽃동산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삼천리 7호, 1930. 7)

나. 난데없는 미인 때가 증인으로 끌여 와서는 꽃밭을 이루었다고 한다.(매일신보 1933. 12.24)

다. 그 꼬임에 빠진 약한 여자는 평생은 인육 시장에서 마치게 된 비참한 사건이 있다.(매일신보 1927. 9.3)

라. 그는 날이 가며 달이 갈수록 자기 몸이 깊은 마굴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매일신보 1924. 2.3)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생의 기사로, 이들이 모이는 곳은 꽃이 많은 꽃동산이거나 몸을 파는 인육 시장 그리고 마굴로 은유화되었다.

그러나 『장한』에 실린 다수의 글에서 시장에 나온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나, 기생은 자신들이 머무는 곳을 꽃밭이라 묘사하지 않았으

며, 특히 자신을 ‘죄인’으로 따라서 그들이 머무는 곳은 ‘감옥’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 (16) 가. 금천에서 료리집에 잇섯든 창기들이 인류시장을 버서나라고 폐창운동을 일으킬 쟈에(기생과 단발, 오므브)
- 나. 기생이란 근원없는 죄명을 이마에 붓치고 이 사회의 처식한 이 내의 생애야말로 눈물겨운 생이라 안을 수 업습니다.(나의 생애에 비초여 동지제매의게 소함. 김녹주)
- 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생이라는 일흠을 주어 이 생감옥에 종신징역을 식힌다.(우름이라도 맘껏 울어보자. 매헌)
- 라. 권번에 대고 통지를 하는 법입니다. 마치 집행유예 바든 사람이 가든지 오든지 경찰서에 통지하는 것과 가습니다.(기생 생활 이면2. 김란홍)

(16)예에서 보듯이 기생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깃덩어리로 자신을 묘사하는 건 동일하나, 특히 기생은 자신들이 ‘(근거없는 죄명을 붙인)죄인’이며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다른 점이다. 게다가 ‘(근거 없는 죄명)붙이다’, ‘(종신징역을)시키다’처럼 사동사(使動詞)가 후행하고 있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살아온 삶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반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생 역시 그들이 머무는 곳을 마굴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들을 화류계로 가게 한 (수양)부모와 그들을 돈을 주고 사는 남자들을 악마라 표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아래는 이를 보이는 예문이다.

- (17) 가. 열두 살 먹든 해에 었던 사람에게 죄임을 바더 악마 굴혈로 쫓녀

가게 되었습니다.(눈물겨운 나의 애화, 이월향)
 나. 돈만 잇스면 무어시든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색마들이다.
 (나는 기생. 전산옥)
 다. 현재나 과거나 기생 부모에 마음이야 일초인들 변할 리가 잇스리
 요. 아, 악마(구천에 사모치는 우리의 한. 김남수)
 라. 다시 한 번 돌려 생각하면 악마 아닌 자가 업더라(사랑하는 동무
 여, 김녹주)

물론 기생을 악마라 평하고 있는 신문, 잡지 역시 기생이 된 것은 그들의 탓이 아님을 인지하고 그들의 부모, 양부모를 ‘악마’로 은유화한다. 하지만 기생을 찾아오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성적인 쾌락만 좇는 ‘사람’들로 은유화하여 기생들이 내뱉는 ‘악마’와는 다소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8) 가. 양모의 독수에서 7-8년 동안이란 지나긴 세월을 무한한 고생을 하여 왔으며(조선중앙일보 1935. 9.6)
 나. 흡혈귀 수양모에게 死로써 항의(매일신보 1940. 5. 9)
 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있어 돈을 많이 주어 속신하게 어렵게 만드는 악마가 있는 터인즉(매일신보 1916. 5. 6)
 라. 그들을 안아줄 것은 연꽃이 아니라 그 정조를 회롱하려는 성적 엽기자와 성적 기아군이다.(동광29호, 1931.12)
 마. 요사이 외입쟁이는 이렇게 놀면 만족하는 귀머거리 육체도의 용 사들뿐이다.(중앙 3권2호, 1936.12)

(18-라,마)에서 기생을 찾아오는 남성들은 성적 트러블을 가진 사람(라)이나 용사(勇士)로 표현되어 그들이 기생을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은폐한다. 이처럼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기생을 바라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음은 아래처럼 동일하게 ‘인형’이라 은유화하는데도 의미차가 나는 데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 (19) 가. 흥동의 거리에서 나를 이저버리고 인형처럼 웃는 상품으로서의
우습은 아니었다.(스러지는 청춘, 淚子)
- 나. 우리의 천부한 인권과 별 가튼 개성은 뉘게다 다 밧치고 이렇듯
호흡하는 인형이 되고 말았는가(장한을 마치며 배죽엽)
- 다. 모든 것이 인형과 갖치 아름답습니다.(고상한 품격을 가져라, 미
국인)
- 라. 자색 조흔 기생과 가무나 능란한 기생은 손님에게 귀염을 밧지만
은 그러지 못한 기생은 참으로 여간한 창피를 밧는 것이 안입니
다. 인형이니 병어리니 하시며(기생생활 이면2, 김란홍)

인형이란 사람의 형체를 가졌지만 사람이 아닌 장난감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은 (19-다)와 같이 쓰이며 말이 없이 형체만 존재하는 기생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 (19-라)마저도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생을 대상으로 놓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일반사람들의 시선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생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호흡하는 인형’은 단순히 누군가의 장난감으로서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다. 기생이 스스로를 인형이라 칭하는 것은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말할 때에 사용한다. 사랑 없이 웃음을 짓는 기생은 인형(19-가)과 같으며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생은 그저 호흡하는 인형(19-나)일 뿐이다. 기생이 원하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생은 『장한』 곳곳에 자신들도 인격을 가진 인간임을 강조하고 동등하게 대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기생의 요구일 뿐 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기생 스스로 자신들은 불구자, 반쪽사람, 바지

저고리라 부르며 자신들을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 (20) 가. 우리난 듯고 보지 못하고 수족업난 일종에 불구자에 불과한 줄은 누구나 물론하고 지금에 여러분이 각오하는 바라. (여자계에 서 광인 장한 잡지 창간에 대하여, 계월한)
- 나. 나라는 자태를 여지업시 저바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덕 헌신을 하는 바지저고리의 생활이 아닙니까?(기생생활의 이면, 김란강)
- 다. 다 갖흔 사람이라는 점에 잊서서 그의 개성을 존중히 너여주겠습니다. 기생이라고 반쪽사람은 아닐 터이니까요(동정으로서 대하여, 비취)
- 라. 아모리 우리의 세상이 아닌 남의 세상이기로 설음 있는자의 눈물 조차야 못 흘닐게 무엇이랴(우름이라두 맘껏 울어보자, 매헌)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생들은 듣고 보지도 못하며 손발이 없는 불구자 처럼 여기지고 있으며(가), 나 자체(自體)를 버리고 남의 세상에 끼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이다. 따라서 기생은 존재로서의 의의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아 반쪽사람(다), 주권이 없는 바지저고리(나)로 은유화된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삶은 아래에서처럼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싶다는 언명으로 모아진다.

- (21) 가.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으로 더불어 벼하게 되는 때에 어찌 탄식인들 업스며(양춘사, 편집인)
- 나. 우리의 몸을 살이고 다갖흔 여성이 되어 장구한 과거 여러분들의 애달픈 영혼을 위로하며 무궁한 미래를 축복하고 (구천에 사모치는 우리의 한. 김남수)

- 다. 그래서 화류계도 눈을 찢습니다. 우리도 눈을 찢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사회력으로 평등력으로 살아보겠다는 부르짖음!(첫소리, 김채봉)
- 라. 우리 기생은 속을 태우는 노동자다. 기생은 머리와 조고만 심장을 썩이여 가면서 여러 손님의 안 맞는 비우를 맞지어 가면서(기생도 노동자다-르가 전란홍)

다른 이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그녀들의 욕망은 앞서 보았던 여러 은유적 표현에서처럼 자신들이 무시되고 부정되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따라서 기생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노동자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생도 사람처럼 대해 달라는 이러한 욕망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듯이 (21-라)처럼 [현재 정해지지 않은 일을 상대방과 자신에게 묻는] 종결어미 ‘-르가’로 끝을 맺고 있다.

2) 기생의 삶은 전쟁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생은 세상 남자들의 ‘꽃’이었으며 그들의 장난감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을 묘사하는 서술어의 사용에서도 드러나는데, 아래 (22-가,나,다) 는 기생 스스로 짓밟히고 세낼 수 있는 물건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예문이다.

- (22) 가.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잔인한 발길에 여지없이 짓밟히는 가련한 동모들아?(우름이라두 맘껏 물어보자, 매헌)
- 나. 마음을 사기 위하여 풍성 풍성히 쓰는 돈이 결코 그대들의 장래를 위하여 영구한 것됨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기생 노릇은 일생의 액운. 김일연)

- 다. 기생이라는 것도 손이 일정한 시간을 세내는 세움입니다.(동정으
로써 대하겠다. 비취)
- 라. 조선 연극을 구경하다가 기생을 서로 빼앗으려고 큰 싸움이 일어
나(울산 동서 편에서 기생 쟁탈전, 매일신보 1920.7.6)
- 마. 이 값비싼 기생의 마음을 따 보려고(동아일보 1925.11.4)
- (23) 가. 노래나 춤을 그 손님의 비위에 마~~크~~도록 하여 들이는 것이(보통
인간으로 대해야 주었스면, 일기생)
- 나. 평양 명물 기생의 맛을 모르고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하여(예로
넌센스, 동침 불응하였다고 기생 걸어 고소. 조선중앙일보, 1933.
10.13)
- 다. 한번 노래하는 아양은 여러 풍류남자로 하여금 그의 정신을 취하
게 하였다.(단발량, 동아일보 1922.6.22)

(22-가, 나, 다)는 서술어 ‘짓밟히다’, ‘사다’, ‘세내다’를 통해 기생이 누
군가의 발에 치이는 대상이며, 사고 빌릴 수 있는 대상임을 보인다. 따라
서 다른 이들이 기생을 대상(목적어)으로 놓고 바라볼 때도 ‘빼앗다’ 즉
소유물(22-라)로, ‘따다[노름, 내기, 경기 따위에서 이겨 돈이나 상품 따위
를 얻다]’ 즉 전쟁의 전리품(22-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의 문자적 언어 속에 이미 일상적으로 기생에 대한 개념이 구조화되
어 있음([기생은 짓밟힌 꽃] [기생은 물건] [기생은 전리품])보이고 있는
데, 이에 따르면 아름다운 기생은 결국은 꺾여서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소유의 대상물이 된다는 의미여서, 누구나 경원해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우습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사고팔거나 전세 낼 수 있는
물건은 쉽게 다른 이의 소유물이 될 수 있으며 전리품으로 개인에게 증여
할 수도 있다.

(23)은 ‘비위에 맞다’, ‘맛을 모른다’, ‘취하다’ 서술어에서 보이듯이 사람

들이 [기생은 음식물이다]로 은유화된 개념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인다. 음식물을 먹게 만드는 마음인 '비위'는 '맛추다'와 함께 쓰여 비리거나 입맛에 맞지 않은 마음을 삭여낼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용례를 토대로 기생 스스로 가무를 음식물처럼 내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생이 다른이들에게 물건이나 음식물처럼 하찮게 취급을 받던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큰 흐름은 기생에게 돈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었겠으나, 은유적 표현을 통해 본 결과, 기생에게 돈은 애증의 대상이다.

- (24) 가. 애달불사 그 필요한 정도의 돈이 압흐로만 지나단이면서 나에게
 는 드러오지 안는다(사랑하는 동무여, 김녹주)
 나. 나도 이후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돈에게 항복할지 모른다.(사랑하
 는 동무여, 김녹주)
 다. 웬수의 금전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학업을 폐지하게 되고(기생
 과 희생, 계산월)

(24-가)에서 보듯 돈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대상이다. [돈은 생물이다]는 개념 체계 아래 기생은 돈을 복수를 해야 하는 사람, 원수(24-다)로 여기고 있으나([돈은 적대자다]) 결국엔 그에게 항복해야 할지도 모른다(24-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돈은 승리자다]). 자본주의의 희생양이기도 했던 기생들이므로 자본의 힘이 증오스럽기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돈은 적대자]의 개념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패배하여 그에게 예속당할 수도 있음을 상정하고 있어, 돈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기생과 달리 근대의 기생은 천인으로 태어나서 기생이 된 것이 아니라 돈이 원인이 되어 강요된 삶을 살게 된 경우가 많다. 따라

서 기생이 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은유는 역시 ‘끌다’를 사용한 가축 은유였다. 특히 이들 용례에는 기생생활에서 벗어나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도 역시 남자가 끌고 가는 동물 즉 가축으로 은유화되고 있어 평생을 비주체적으로 살아야만 했던 기생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25) 가. 엇던 사람에게 피임을 바더 악마굴혈로 끌너가게 되였습니다.(눈물겨운 나의 애화, 이월향)

나. 하오 4시만 되면 또다시 밥벌이 터로 끌려 나가기 위해(매일신보 1929.1.20)

다. 화류계 여자를 내 사랑이라고 죽자 살자 하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갈 때는 언제고(삼천리 5권10호)

라. 나 一個人이 흑 好男子를 만나 소위 錦衣綾羅의 사리고 金銀珠玉의 장식을 한 남의 良妻이나 되야 안일을 貪한단들,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바 理想的의 生이라 하며 解放이라 할가요(나의 생애에 비초여 同志諸妹의게 訴함, 김녹주)

(25-가,나,다)는 ‘끌려가다’ 즉 [남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끌려 가다]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를 기생이 될 때, 기생이 되고 나서 연회에 나설 때 그리고 기생생활에서 벗어날 때, 모두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이를 보면 기생의 수동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기생생활을 벗어나도 ‘첩’의 신분엔 머물러야 했던 그들(25-라)이기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힘이 기생들의 글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5-라)에서 남의 양첩이 되어 기생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들의 이상적 삶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처럼 기생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한다.

(26) 첩은 첩년 혹은 잡년들이란 말을 한다. 잡년이라고 개인 보고 안 하
 야도 우리로 잇서 듯기 반갑도 할리 업거던 우리 전체를 대하여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건 우리로 잇서 듯기 조홀 리 업다. 이걸 무얼로 방비할가.(중략)
 과거에 불상히 고훈은 여러 영혼을 위해야만 하겿고 제일로 후진들을 위하
 야 용맹스럽게 싸워보자.(구천에 사모치는 우리의 한, 김남수)

(27) 종교를 설명하고 인도를 운운하며 여성해방을 목표하고 써도라다니
 는 그분네가 과연 우리의 이 생활의 진면목을 맞이나 보고 그리고 쏘는 皮肉
 의이나 아닌가 하외다. (중략)약하고도 무저항적이거나 단결력으로써 이 사
 회의 모든 불합리한 호혈을 돌파맹진치 안으면 우리의 생명선은 쓴어지리
 로다.(나의 생애에 비초여 동지제매의게 소함. 김녹주)

세상 사람들을 적수로 보고 그들을 가두어놓은 울타리를 공격하여 앞
 으로 나아갈 것이며(27), 세상의 편견에 맞서 그들의 입장을 방어하기도
 한다(26). 기생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수행하는 많은 행동이 부분적
 으로 전쟁이라는 개념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이는 예이다. ‘우리의
 무저항의 생애로부터 자유의 이르기까지 얼마나 장원한 생의 투쟁이 있
 서야할가요? 물론 현재도 시간시간의 생의 투쟁을 지속하는 중이지만은
 (나의 생애에 비초여 동지제매의게 소함. 김녹주)’ ‘더욱이 화류계라는 색
 다른 곳에서 악착한 현실과 싸호는 기생들에게는 더욱이 그럴 것이다(그
 구한 몸, 이금홍)’와 같이 기생의 삶이 투쟁의 연속임을 보이는 구절은 여
 기저기에 나타난다. 이런 은유적 표현들의 분석은 기생들의 삶을 물리적
 충돌의 관점에서 개념화하도록 해준다. 인간의 역사가 물리적 충돌의 과
 정을 겪고 인간이 이 세상의 지배자로 설 수 있었음을 증명했음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물리적 경험과 문화적 경험 속에 토대를 둔 [삶은 전쟁이다]
 는 은유는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기생들
 의 경험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 스스로 기생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

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치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결론

‘기생 죽은 녀’이란 속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다 낡아 못 쓰게 되었어도 아직 볼품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기생의 걸으로 드러난 모습이 좋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게을러빠지고 모양만 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기생이 걸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한 속담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기생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이 양가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기생은 천하지만 높은 교양과 예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완롱물이었지만 또 그들의 진심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기생들의 은유화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기생은 그들이 전생의 원한이 있어 업보처럼 기생의 운명을 짊어지고 불구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한탄하며,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해방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음을 『장한』에 실린 기생들의 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전통적인 은유관을 따르는 이들은 A를 B로 표현하는 의식적이고 목적적인 어휘의 사용으로 은유를 정의하지만, 인지언어학적 입장에서는 전통적 은유관에서는 죽은 은유로 처리되었던 관습적인 은유에 주목한다. 이들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문화의 일상적인 개념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는 은유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들 중 추상적이거나 경험 속에 명확히 묘사되지 않은 것들을

구체화시켜 감추어진 본모습을 드러내게 해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접근한 기생의 은유화는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기생관련 어휘와 기생 스스로 자신을 정의내리는 어휘가 서로 달랐음을 끌어낼 수 있었다. 즉 사회의 시선은 기생을 꽃, 사고파는 물건(장난감, 고깃덩어리), 악마라고 부르지만 이와 달리 기생 스스로는 자신을 반쪽사람, 불구자라 부르고 있었다. 이는 기생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냈던 『장한』 곳곳에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나가기 위해 맹렬히 전쟁을 벌일 것임을 표명한 [기생의 삶은 전쟁] 은유체계와 일치하는 바이기도 하다. 물론 기생과 동일한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던 신여성들과의 차별화되는 지점을 살펴 기생이 여성이었기에 받았던 차별이 은유화된 것인지 기생이라는 특정영역을 묘사한 은유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의미구별에 더 세심함을 기해야 하겠지만,⁶⁾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6) 사실 사물화은유, 동물화 은유, 식물화 은유, 음식물 은유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은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아래 1,2). 이는 신문기사에서 여성들 대부분이 기생과 같이 지옥생활을 경험하고 있으며(아래 3) 여학생도 참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서 유희의 대상(원숭이, 말)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음을 보이는 것(아래 4)과 일치한다.

- (1) 자기의 아내라는 그 여자를 아주 사버리고 마는 셈이다.
- (2) 무엇에나 자기는 꼼짝 아니하면서 여자만 부러먹기를 꺼리지 않는다.
- (3) 순결한 처녀가 강제결혼, 매매결혼의 결과 생전지옥의 생활을 보내었는가.
- (4) 여자교육의 의의가 이에서 지나지 못한다 하면, 흥행에 부러먹기 위하여 원숭이와 말에게 재주를 배워주는 것이나 다름이 무엇이랴.

이런 예문들은 당시의 기생의 삶을 재구해 보는 것이 여성의 은유를 재구한 것과 비슷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에서 기생과 구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 기대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은유적 표현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손중흠 외, 『근대기생의 문화와 예술: 자료집 1』, 2009, 보고사, 419쪽.
_____, 『근대기생의 문화와 예술: 자료집 2』, 2009, 보고사, 577쪽.

2. 논문과 단행본

-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325쪽.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4』, 1999, 408쪽.
길진숙,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속의 서울, 모던, 여성의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18, 2009, 57-96쪽.
김중도 역, 『인지문법의 토대』, 박이정, 1987, 626쪽.
김중도, 나익주 역, 『문법과 개념화』, 박이정, 1999, 612쪽.
김형철, 「개화기 신문의 어휘 연구-제국신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 1994, 115-162쪽.
_____,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출판부, 1997, 386쪽.
나익주 역,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3, 688쪽.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298쪽.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326쪽.
민현식,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83, 1994, 113-152쪽.
_____,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2)」, 『국어교육』 84, 1994, 101-123쪽.
민현식,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방법의 재검토」, 『동양학』 32, 2002, 257-289쪽.
_____, 「개화기 국어 변화의 계량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39, 2002, 47-80쪽.
박애경, 「기생-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이론』 4, 2001, 220-233쪽.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1-5』, 서광학술자료사, 1997, 382쪽.
_____,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한국어의미학』 11, 2002, 161-176쪽.
서지영, 「조선시대 기녀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2002, 291-319쪽.
_____, 「이미지와 환상을 넘어서」, 『여성이론』 12, 2006, 104-122쪽.
_____, 「식민지시대 기생 연구」, 『정신문화연구』99호, 2005, 267-294쪽.
송 민, 「개화기 어휘 개신에 대하여」, 『어문학논총』11, 1992, 41-61쪽.

- 수유근대매체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363쪽.
- 심광현, 「유물론적 문화지형학 구성의 전망」, 『문화과학』1, 1992, 91-116쪽.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1984, 55-84쪽.
-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4, 438쪽.
- _____, 『근대 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 2006, 366쪽.
- 이정화 외 역, 『은유』, 한국문화사, 2003, 482쪽.
-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기생 소재 대중가요의 노랫말 분석」, 『한국문화』35, 2005, 89-115쪽.
- _____, 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 『민족문화논총』 30집, 2004, 463-510쪽.
-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집, 2004, 99-127쪽.
- 전혜영, 연어구성에 나타난 남녀 은유의 양상, 『여성학논집』 22-1, 2005, 53-77쪽.
-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390쪽.
- 조혜자,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 6-3, 2001, 107-125쪽.
- 차혜영, 1920년대 잡지의 재편과 타자 표상의 상관관계, 『역사와 현실』 57, 2005, 49-80쪽.
-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역사비평』 71, 2005, 356-377쪽.
- 한기형 외, 『근대어 근대매체 근대문학 :근대매체와 근대언어질서의 상관성』, 성대대동문화연구원, 2006, 501쪽.
- 홍인숙, 『근대 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2쪽.
- 홍중선, 「개화기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7, 1996, 33-86쪽.
- Kovecses, Z, “The ‘container’ metaphor of anger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Hungarian”, *Rom a Metaphorical Point of View: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Cognitive Content of Metaphor*, Merlin: Walter de Gruyter, 1990, 117-145쪽.
- Kovecses, Z, “Metaphor and folk understanding of anger”, *Everyday Conceptions of E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of Emo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5, 49-71쪽.
- Lyons, J.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897쪽.

ABSTRACT

Realities and hope of kisaengs in the early 20th century

- The using with the concept of cognitive linguistic metaphor -

Kang, So-You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metaphorical expressions related to kisaengs in *Janghan* and, based on them, to examine how kisaengs were perceived in those days. As a result of change in the kisaeng system, kisaengs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revious ages. With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material ownership under capitalism, kisaengs began to regard their entertainment service as a job and to defend their labor activities actively against people's contempt and branding them as immoral. This is evidenced clearly by kisaengs' writings published in *Magazine Janghan*, which represented their own voices, rather than by the images of kisaengs represented by others' voice as in individuals' collections or literary works. In this study, we classified metaphorical expressions on kisaengs in the magazine, and compared them with metaphorical expressions describing kisaengs in other magazines and newspapers in those da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isaengs were expressed as flowers, toys, lowly people or animals in both groups, and these perceptions were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history of kisaengs, who were no more than a sport and slave to literati. In the language used in daily life, however, kisaengs raised their own voice, asserting that those who called kisaengs devils were actually the devils and grieving that they were dragged like livestock by those who criticized kisaengs as noxious insects. In addition, through the metaphor [A kisaeng is an incomplete human], they clarified directly that what kisaengs desired earnestly was being recognized as a human equal to others, and maintained through the metaphor [Kisaengs' life is a war] that they would fight for winning it. To know is one thing and to show

that the knowledge has been settled in our language as a customary metaphor is another. When we analyze how kisaengs are described in customary metaphors, in particular, predicates, we can see that their voices hidden under locutionary meanings are leaking unceasingly between the lines. This may be what kisaengs wanted to say to people through Janghan and, accordingly, this is the meaning of analyzing texts with the concept of cognitive linguistic metaphor.

Key Words kisaengs, Janghan, metaphorical expressions, Cognitive linguistic, [A kisaeng is an incomplete human], [Kisaengs' life is a war]

| |
|----------------------|
| 논문투고일 : 2009. 10. 18 |
| 심사완료일 : 2009. 11. 22 |
| 게재확정일 : 2009. 12. 04 |